

## 電話機發明은 벨과 와트슨

— 1876年 3월에 特許出願 —

電話機로서 제일 먼저 通話된 內容에 대해서는 區區한 說이 있으나 믿을만한 이야기로는 『아! 와트슨 큰일 났다』라고 傳해지고 있다.

1875年 6月 2日 그레이함 벨은 그의 助手인 와트슨과 電信機의 試驗에 熱中하고 있었으며 벨은 受信機, 와트슨은 送信機를 각각 자기의 試驗室에서 調整하고 있을 때 벨의 수신기에서 갑자기 묘한 소리가 튀어나와 이에 놀란 벨은 큰소리로 『와트슨! 스톱, 그대로 그대로』하고 부르짖었다.

와트슨의 얘기를 들은 벨은 마침내 誘導電流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때의 소리는 와트슨이 리드를 비틀때에 유도전류가 發生하여 그것이 수신기의 리드를 울리게 된것으로 感知하게 되었다.

이를 契機로 두 사람은 電話機의 發明에 골몰하여 그로부터 10個月 後에 마침내 전화기를 完成시켰다. 그때가 1876년 3월이다.

그러나 발명된 전화기를 實驗하는 찰나에 흥분한 벨이 전화기를 귀에 대려할 때 그만 電池의 稀硫酸이 洋服바지에 떨어지면서 타기시작하자 놀란 나머지 그는 그만 소리를 지른것이 『와트슨! 큰일났다』는 말이었고 그 소리가 世界最初の 電

話機를 통한 通話였다는 것이다.

이어서 벨은 발명과 더불어 特許를 出願하였다. 그해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美國獨立100周年祝賀博覽會에도 出品하여 大人氣였고 이듬해인 1877년에는 벨이 電話會社를 設立하여 전화기를 市販하려 하였다.

그러나 벨이 특허출원한 같은 날에 같은 原理의 전화기를 출원한 사람이 있었다. 에리사 그레이가 바로 그 사람이며 그 權利를 美國最大의 電信會社 웨스턴 유니온에 팔아버렸다.

벨은 이에 당황하지 않고 그레이의 출원을 調査한바 그레이의 출원이 벨보다 2時間이 늦은 것을 確認했다. 드디어 웨스턴 유니온은 전화기의 제조를 斷念하고 벨이 진실한 전화기의 發明者가 되었다.

問題는 또 있었다. 獨逸의 라이스라는 사람이 1861년에 간단한 電話裝置에 대하여 發表한 적이 있었고 그가 居住하던 게문포젠에서는 오늘까지도 電話기의 발명은 라이스라고 말하면서 碑石까지 세워 놓았다.

## 畫家를 겸한 發明家

— 超時代의 L. 다 빈치 —

레오나르도 다 빈치라고 하면 모나리자의 畫家로서 너무나 有名한 까닭에 一般의 世界的인 發明家로서는 자칫 잊기가 일쑤다.

하지만 그는 1452年 4月15에 피렌체의 빈치라는 마을에서 태어났으나 그의 着想이 너무 時代를 앞질렀기 때문에 많은 構想이 科學의 꿈으로 끝난 것의 許多하다.

그는 항상 말하기를 『人間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 可能하다고 믿어야 하며 그러면 언젠가는 누군가가 반드시 그것을 成就시키리라』 하였다.

그래서 이미 15世紀에 기어, 피스톤, 스프링을 使用한 機械와 自動車, 飛行機의 原理를 발명하여 現代에 通用되는 과학적으로 正確한 設計圖의 役割을 하게 된 것이다.

## 斷頭台는 醫師가 考案

— 프랑스革命中에 첫使用 —

斷頭台인 Guillotine을 發明한 사람은 프랑스의 醫師인 J.I. 규턴이다.

1792年 프랑스는 革命中이었으며 그 까닭에 死刑이 盛行되고 있었으나 그 方法은 火刑 아니면 絞首刑이었다. 규턴은 受刑者의 安樂死를 궁리하다가 處刑機械를 考案하여 그 名稱을 Guillotine이라고 붙여 樂器 製作工에게 製作시켰다.

이 단두대가 1793년에 政府에서 採用되었고 루이16世를 비롯한 著名人들이 이 기계의 이슬로 사라졌다. 그러나 이 단두대가 眞正한 安樂死의 口實을 했느냐에 대하여는 異論이 없지 않다.